

나주시 부실시공 점검 강화...지적 건수 절반 줄었다

소규모 건설공사 상시 점검반 운영...시공 품질 향상 기대

“부실시공 꼼짝마!”
나주시가 소규모 공사 등의 부실시공 점검에 팔을 걷어부쳤다.
나주시는 전국적으로 인건비와 원자재 값 상승이 지속되면서 건축 건축물 하자 논란 사례가 잇따르자 부실시공 점검 활동을 강화한 결과 지적 건수를 크게 낮추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상시 점검반’을 지속 운영해 부실 지적률이 대폭 감소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앞서 나주시는 올해 상반기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260건을 현장 점검했다.
그 결과 잔토나 폐자재 방지, 안전 장구 미착용, 전봇대 미이설 등 48건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를

하고 있다.
특히 상시 점검반을 지속해서 운영한 결과 1분기 30%에 달하던 지적률이 2분기엔 14% 줄어든 16%까지 감소했고 안전·품질 건설 시공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단순히 현장점검에만 그치지 않고 직무교육 시 주요 지적·우수사례 전파를 통해 부실시공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상시 점검반 운영을 통해 소규모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한 시공 품질 확보에 나서겠다”며 “부실시공 예방, 체계적인 현장관리 등 보다 안전한 지역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상시 점검반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시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상시 점검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부실시공 상시 점검 현장. <나주시 제공>

안부 묻고 반찬 전달...고독사 없는 장성군

위험군 주민 51명 12월까지 지원

장성군이 고독사 없는 복지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읍·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험군 주민 51명이 대상이다.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피고 필요 물품을 전달하는 것이 핵심으로 반찬 지원은 월 1회, 건강음료는 월 3회 지원하며 기간은 올해 12월 말까지다.
여기에 위험군 주민들의 안부를 꾸준히 확인하기 위해 ‘읍·면 복지기동대’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고독사 예방 지킴이’로 양성하고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하고 있는 고독사가 장성에서 만감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안전망과 지원 체계를 확실하게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이 고위험 가구를 대상으로 안부를 묻고 반찬 등을 전달하는 ‘고독사 예방 시범사업’을 연말까지 추진한다. <장성군 제공>



재개관을 앞둔 ‘담빛영화관’.

담양 담빛영화관, 15일부터 운영 재개

한 달 휴관 기간 위탁 업체 재선정

담양군 작은영화관인 ‘담빛영화관’이 한 달 간의 임시 휴관을 마치고 오는 15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담빛영화관은 임시 휴관 기간 중 안정적인 업체를 재선정하는 과정을 거쳐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에 위탁했으며, 재개관을 앞두고 있다.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는 담빛영화관, 해남시네마, 영암기찬시네마를 포함해 전국 17개 지점을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11개 지점에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담양군 청소년문화의집 1층에 자리한 담빛영화관은 2021년 8월 군민의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을 열었으며, 개관 이래 누적 관람객이 8만20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재개관한 담빛영화관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성인 6000원, 65세 이상 어르신과 만 18세 이하 청소년 등은 50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다시 문을 연 담빛영화관이 군민에게 일상 속 문화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hdh@kwangju.co.kr



산림욕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진 초당림이 피서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강진 초당림 숲길. <강진군 제공>

강진 초당림서 산림욕·물놀이 함께 즐기세요

풀장 5개, 18일까지 무료 운영

산림욕과 물놀이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강진 초당림이 인기를 끌고 있다.
백합나무와 편백이 울창한 숲속에서 산림욕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초당림은 계곡을 선호하는 어른이나 물놀이장을 좋아하는 어린이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곳이다.
초당림에는 풀장 5개, 평상 11개, 산책로 2km가 조성되어 있으며, 물놀이장에 개별 배수시설을 설치해 삼복더위에 깨끗하고 서늘한 물놀이를 체험할 수 있다.

초당림 산책로는 데크길로 조성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안전하고 호젓하게 산책길에 나서볼 수 있다. 숲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계곡의 음이온과 숲의 피톤치드를 마시며 걷다 보면 자연치유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숲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우거진 녹음과 함께 계곡의 물소리, 바람소리, 새소리 등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가 들는 것만으로도 힐링을 선사한다.
오는 18일까지 무료 운영하는 초당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선착순 입장이

다. 안전을 위해 매시간마다 50분 물놀이 후 10분 휴식이며, 12시부터 1시까지의 정비 및 휴식을 위해 물놀이가 잠시 중단된다.
물놀이장 수질관리와 시설 점검을 위해 초당림은 매주 월요일에 휴무하며 기상 상황이나 수질 상태에 따라 이용이 불가할 수 있다.
초당림은 편백림과 백합림이 어우러진 국내 최대 인공림으로 초당 고(故) 김기운 회장이 50여년 동안 960ha의 산림에 편백과 백합나무를 식재해 공원을 조성해 온 강진의 숨겨진 관광명소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화순군 1분기 생활인구 31만6506명...주민등록인구 5.2배

체류인구 전남 시·군 두번째 많아

올해 1분기 화순군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의 5.2배인 31만6506명으로 집계됐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생활인구를 산정, 공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화순군 평균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6만1077명, 외국인 983명, 체류인구 25만4446명 등 총 31만6506명으로 산정됐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인구개념으로,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인구’에 ‘외국인등록인구’와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체류인구’를 더해 산정한다.
특히 화순군 체류인구는 주민등록인구의 4배 규모로,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주민등록인구 6만명 규모인 고흥군, 해남군과 비교해 화순군 체류인구가 6만~8만명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내에서는 지역축제가 열렸던 3월 구례

군이 가장 많은 체류인구수(44만9206명)를 기록했다.
체류인구는 해당 지역에 머물며 소비활동을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도록 교통·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며 “여기에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장흥군 ‘관현악 축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현대적 관현악 선 보여

22일 장흥문화예술회관

장흥군이 오는 22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국립국악원 주관 ‘관현악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2024 국악을 국민 속으로’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립국악원 소속 창작악단이 현대적 관현악 공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에서는 ▲Frontier ▲서도소리와 관현악을 위한 ‘바람과 나무와 땅의 시(時)’ ▲해금 협주곡 ‘추상’ ▲‘세계 재즈 기행’ ▲관현악을 위한 3중주 협주곡 ‘무산향’ ▲아리랑, 희망가, 아름다운나라 ▲‘판놀음’ 등 총 7곡이 연주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국악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는 동시에 관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무대를 제공할 예정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장흥군민은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장권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장흥문화예술회관 현장 예매와 인터넷 ‘티켓링크’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공연이 한국 전통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개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함평군, 청년 한우 축산인 간담회

한우 산업 경쟁력 높이기 모색

20명 참석...다양한 개선안 제시

함평군이 최근 청년 한우 축산인들과 한우 축산 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함평군이 청년 축산인들과 함께 지역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한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후계 축산 경영인 20명이 참석, 한우 농가 경영 진단과 사료 개선 비용절감

등 한우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농가들은 ▲제매단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내 고품질 사료 생산 ▲이력제 관리를 통한 혈통 구축 ▲미경산우 비육 프로그램 마련 ▲거세장려금 지원 범위 확대 ▲발효사료 배합기 지원사업 ▲왕겨 지원사업 확대 등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시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축산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며 “주기적으로 축산농가와 소통 공감하는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